

Ⅲ. 농어촌 및 소도시에 있어서의 환자진료의 문제점

*환자의 치과에 관한 인식도와 개선책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조 광 현

치과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는 치의학의 꾸준한 발전과 치과의사의 양적인 증가, 질적 향상과 함께 경제수준의 향상, 그리고 매스컴의 발달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국민계몽을 통해 꾸준히 개선되어 오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꾸준한 개선은 도시에서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농어촌 및 소도시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도의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 및 소도시의 치과에 관한 인식부족은 아직까지도 성행하고 있는 돌팔이 치과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들 농어촌 및 소도시의 많은 주민들은 지금까지 많은 돌팔이들에게서 불법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받고 있으면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치과의사의 부족 및 경제적 이유등으로 현재도 돌팔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 주민들은 유치치료의 필요성과 치주치료의 필요성은 거의 느끼고 있지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주민들이 치과에 관한 개념을 어느정도 인식된 도시인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치과의사에 대한 호칭문제를 보더라도 주민들의 인식도를 감지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주민들은 치료를 받으러 왔을때 치과의사를 "아저씨"라 부르며 심지어 교사들조차도 학생들에게 "이를 뽑는 아저씨"라고 소개하는 경우조차도 있다고 한다. 이는 치과치료를 의술보다는 단순한 기술로만 인식함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로 인하여 치료비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 병원에서는 잘 깎으려 들지 않지만 치과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깎으려 들고 명시된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 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이는 경

계 수준 및 교육 수준이 낮음으로 해서 질적인 것보다는싼 것을 우선적으로 찾는 당연한 결과일수도 있으나 치과의로 행위가 단순 기술이 아닌 깊은 학문적인 바탕에 기반을 둔 고도의 의료 행위라는 사실이 인지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수있고, 이에 대하여는 치과의사 자신들도 약간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심각한 치과에 관한 인식부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주민들에 대한 계몽활동에 상당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먼저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빈번한 공중보건의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빈번히 행하고 있는 발치만 해주는 실적위주의 순회진료보다는 이 시간에 충치예방과 치주관리등에 관한 계몽에 시간을 더 많이 할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강화가 더욱 필요한것 같다.

일반교사와 양호교사들의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이들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치과의사와 돌팔이와의 분명한 차이점을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돌팔이들의 유혹에 주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강력한 행정지도등을 통하여 일부 농촌지역에서 행정당국으로부터 묵인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 돌팔이의 불법 의료행위를 강력히 억제시켜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치과의사들의 양심과 사명감에 입각하여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는 대학시절의 올바른 가치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치과대학 교육과정 이 이러한 면에 대한 비중이 더욱 높아져야만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료

계의 분위기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경제수준의 향상은 항상 긴밀한 관

계가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치과기공학회 정기총회 성료 학회장에 金榮坤씨 유임



〈치과기공학회 정총 광경〉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치과기공학회는 지난22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열고, 학회장에 김영곤씨를 유임시키는 한편 박용득, 김웅

철 부회장등 현 집행부를 전원 유임시켰다.

이날 총회는 현 집행부가 학회육성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치하하고, 회원들의 다수결의에 따라 앞으로 2년간 회무를 다시 맡아줄 것으로 권고, 유임시켰다.

회의는 집행부가 마련한 새해예산 7백60여 만원을 원안대로 확정, 통과시켰으며 새해 중요사업으로 학술집담회를 자주가져 새로운 치과기공 기술을 받아 들이기로 하였으며, 외국의 치과기공계와 학술교류를 보다 활발히 갖기로 했다.

한편 총회에 이어 개최된 학술집담회에는 한무현씨(한무현치과의원장)의 “Crown & Bridge 기공에 대하여”와 이병기씨(대전보전치기공과)“관교의치제작시 Water Bath technique메물 방법에 다른 지대치 적합도에 관한 실험연구”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선화치과기공소

대표 李 禹 成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32-3

전화 753-1662 753-1666